

이슬라마바드 아프간 난민 사역

2025. 2.9~18

저는 2월 9일 달라스 공항을 출발해서 거의 30시간 3공항을 경유해서 11일 새벽 6:00 시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다. 하디와 나비드 두 사역자가 공항에 픽업을 나왔다. 함께 호텔을 check in 하고서 오전 9시부터 오전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Afghan Bible Collage 사역자들의 사역 현장을 돕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ABC 학생들은 그동안 zoom 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은 특별히 off line 수업, 즉 사역을 위한

현장실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멀리서 Zuma 사역자 가정과 (5명) & Angilla 는 Queta 지역에서 17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만났으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가웠다.

우리는 7사역자들이 모였고 함께한 가족들을 합하면 19명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 청소 당번, 식사당번, 그 외 다양한 일들을 협력해서 일주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팀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모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전에는 수업을 진행하고 점심 식사후에는 아프간 가정들 심방을 지속했다. 우리는 1주일 동안 30가정을 심방 했고, 그리고 16일 주일에는 아프간 가정들 40여명이 함께 모여 주일예배를 정말 기쁨 마음으로 함께 드렸다.

나는 모든 모임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과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다녔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경찰들이

시도때도 없이 아프간 가정들을 불시에 방문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검열을 해서 비자가 없으면 바로 추방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프간 가정들이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고 비자가 없어서 일할 곳이 없는 아프간 가정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우리 팀은 구호 식품을 준비해서 가정 방문때에 예배도 드리고 기본적인 필요들을 돕기도 하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안수 기도를 하였다.

파키스탄 자체가 가난한 나라였다.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피난 온 아프간 가정들의 삶은 가난과 두려움속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프간 난민들에게는 파키스탄 경찰의 핍박 상황속에서도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매일 방문하는 가정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다.

첫째 날 방문했던 Zarifa 는 남편은 탈레반에게 죽고 Zarifa 부인 혼자서 10살 미만의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 와중에 2째 아이 Sabargul 이 아프다고 한다. 우리는 그 아이를 담요를 깔고 뉘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집은 길가 집이라 유리창으로 밖에서 집안이 훤히 보인다. 그래서 전기불을 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이 가정에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유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는 기도를 마쳤는데 이 아이는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래서 옷으로 덮어주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으며 그 가정을 나오며 계속해서 담당사역자가 잘 돌보도록 부탁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 중에 17일 맨 마지막 날 방문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유습가정 4식구, 조카는 아프간에서 American University 를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여동생네 가정 4 명, 그 여동생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나왔다고 한다. 이 가정의 특징은 가족들이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이곳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전 세계가 전쟁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프간 민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 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란다.” 성경말씀에 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 또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부디 믿음으로 Breakthrough 하시기를 이 상황에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다. 이 믿음을 놓지 말고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그들의 눈에는 소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아프간난민 가정들이 참담한 현실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다. 고난을 당하는 저들은 하루 하루를 살아 내기가 힘든 현실이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 고난속에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보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우리는 17일 저녁까지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50 개 구호식량과 심방에 필요한 차비 3월 치를 사역자들에게 제공하고 나는 18일 새벽

6시 이슬라마바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다음 방문을 기약하며 ...

• 중보기도

1.파키스탄의 사는 아프간 난민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1.ABC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사역 잘 감당할 능력을(영권, 인권, 물권) 주시길 기도합니다.

1.아프간 난민들이 핍박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아프간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1.아프간 난민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지금 미주 각교회에서 초청하고 있는 아프간 사역자들의 케이스가 열려서 이 곳에서도 아프간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들이 열리게 하소서